# 「같은 트랙, 같은 출발선」

: 서울시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청소년의 과업 성취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학원 매칭 지원 사업

## 1. 가구주 학력에 따른 소득

[ 표 1 ] 가구주의 최종학력에 따른 가구 소득 수준 비교

| 가구주 교육정도 | 연간 평균 경상소득 | 대졸 이상 대비 소득 수준 |
|---|---|---|
| 초등학교 졸업 | 2,932만 원 | 30.5% |
| 중학교 졸업 | 4,656만 원 | 48.4% |
| 고등학교 졸업 | 6,705만 원 | 69.8% |
| 대학졸업 이상 | 9,611만 원 | 100.0% |

출처: 통계청. (2025). *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: 가구주 교육정도별 자산·부채·소득 현황.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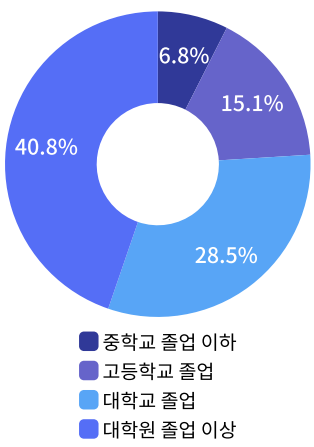
**가족의 경제적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학력 결핍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로 이어져 대졸 가구주 대비 초졸 가구주의 소득이 3.3배나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빈곤을 형성함. 가족 내 만성적인 소득 결핍은 자녀 양육 및 인적 자본 투자 여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1차 출발선 격차를 발생시킴.**

## 2.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격차

부모 학력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[ 표 2 ]

| 최종 학력 구분 | 아버지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| 어머니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|
|---|---|---|
| 중학교 졸업 이하 | 19.0만 원 | 18.5만원 |
| 고등학교 졸업 | 32.8만 원 | 32.3만 원 |
| 대학교(4년제) 졸업 | 49.6만 원 | 50.0만원 |
| 대학원 졸업 이상 | 64.2만 원 | 65.5만원 |

부모 학력별 월 7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중 그림 1




- 대학원 졸업 부모 가구는 10가구 중 4가구(40.8%)가 월 7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반면,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는 6.8%에 불과함.
- 부모의 학력 자본 격차가 고비용 학습 기회 선점의 양극화로 직결되어, 저학력 가구 자녀의 상위권 진입과 학습 성취 출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함.

출처: 국가데이터처·교육부. (2026). *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보고서* (표 2-5, 표 2-7, 표 3-1, pp. 145, 149, 157).




## 3. 기존 정책과 현장 서비스의 한계

서울시 교육급여 지원액과 민간 전문학원 실제 수강료 격차 [ 표 3]

| 구분 | 서울시 교육활동지원비 (교육급여, 연 1회) | 민간 전문학원 실제 수강료 (서울 참여학생 기준, 연 환산) |
|---|---|---|
| 초등학교 | 50만 2,000원 | 810만 원(월 67.5만 원) |
| 중학교 | 69만 9,000원 | 978만 원(월 81.5만 원) |
| 고등학교 | 86만 원 | 1,265만 원(월 105.4만원) |

출처: 교육부·서울특별시교육청. (2026). *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: 교육급여 지원 기준 안내.* https://oneclick.neis.go.kr; 국가데이터처·교육부. (2026). *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보고서* (표 16, p. 39).

- 현행 서울시 교육급여의 연 1회 바우처(고등 86만 원)는 서울 지역 월평균 학원비 (105.4만원)의 한 달 치에도 미치지 못함.
- 단발성·소액 지원에 머물러, 저소득 가구 청소년이 정규 학원 트랙에 참여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함.

### 현장 서비스의 한계(넓고 얕은 체험 편중)

- 청소년센터,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현장 기관의 프로그램은 취미·여가 중심의 '넓고 얕은 단기 체험'에 집중되어 있음.
- 실제 상급 학교 진학 및 진로 경쟁에서 학업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유능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'좁고 깊은 심화 학습'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.

## 4. 에릭슨의 발달 과업과 학업적 유능감

### 근면성(Industry) 대 열등감(Inferiority)의 갈림길:

-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·청소년기는 학습과 과업 성취를 통해 '유능감'을 획득해야 하는 핵심 시기임.
- 또래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전문학원 학습 환경에서 배제될 때, 청소년은 성적 이전에 "나는 뒤처졌다"는 만성적 열등감과 학업적 무기력을 형성할 수 있음.

출처: 김수정, 장수미, 오창순. (2023).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. *인간행동과 사회환경* (pp. 116-129). 학지사.

### 가족의 교육 영역을 국가가 분담해야 하는 이유:

- 현대 가족복지는 가정의 경제적 결손으로 인한 자녀의 발달과업 실패를 사회가 보완하는 '공적 가족 지원'을 책무로 규정함.
- 따라서 성적 경쟁이 아닌 "과업 수행에 동참할 수 있는 같은 출발선"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필수 복지 개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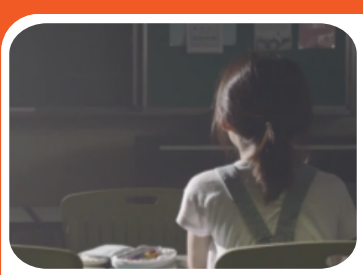
## 5. 정책 제안: 「같은 트랙, 같은 출발선」 전문학원 매칭 지원사업

서울시 청소년 전문학원 매칭 지원사업 세부 실행 계획 [ 표 4 ]

| 구분 | 세부 내용 및 운영 기준 | 사회복지적 의의 및 차별성 |
|---|---|---|
| 사업 대상 | 서울시 거주 만 13세 ~18세 청소년 | 중등 진학 전환기부터 입시까지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핵심 시기 집중 지원 |
| 소득 기준 |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사교육 공백을 보완하여 실질적 학습 기회 보장 |
| 선발 방식 | 성적 배제<br>학습 계획서 서류 심사 | '성적 결과'보다 '성장 동기'를 평가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업 유능감 회복 |
| 지원 방식 | 비낙인형 전자바우처 카드 | 일반 원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강 |
| 평가 척도 | 자기효능감 척도<br>청소년 자아유능감 척도 | 단순 성적 향상이 아닌,<br>사전-사후 심리적 유능감 회복 검증 |

상상태로 서울

정책 제안 참여하기



EBS 기획특집:
격차로 인해 무기력해진 아이들의 현실

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교육 격차

출처: EBS. (2023, 5월 8일). *다큐멘터리 K - 교육격차 4부* [Video]. YouTube. https://youtu.be/URYz3kKj7hA

1 2 3 4 5 6